

탈발전(Posdesarrollo)의 정치생태학 연구소고*

- 아르투로 에스꼬바르의 비판이론을 중심으로

안 태 환
(부산외국어대학교)

I. 들어가는 말

근대성과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는 16세기부터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로 약 오백 년 동안 퍼져나갔다. 경제적 생산의 기초는 물론이고 가치관과 문화등 사회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어왔다. 근대성의 신념은 무한대의 진보 또는 발전에 있다. 그 무한적인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와 과거에 이윤 및 시장영역에 편입시키지 않았던 영역들- 예를 들어 열대우림의 바이오다양성에 대한 전통적 지식 등-까지 지속적으로 자본의 영역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명과학, 바이오테크놀로지, 마이크로 전자공학의 발달 덕분에 열대우림의 바이오다양성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에게 최근에 가장 소중한 “자연자원”으로 변환되고 있다(Santos 2001, 21).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이 같은 흐름이 욕망의 충족을 위한 보편적 공간은 확장되고 자연의 상품화 또는 자본주의화에 반대하는 전통적 ‘장소’는 실종되고 있다는 점이다. ‘장소’의 사라짐은 우리의 문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A00003)

화, 지식, 자연, 경제에 아주 깊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글로벌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것은 공간, 자본, 역사이고 이에 저항하는 로칼리티는 장소, 노동, 전통을 포섭하고 있다(Escobar 2000, 114). 이 과정에서 에스코바르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무차별적 침입에 대한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의 ‘장소’를 방어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콜롬비아 열대우림의 사회운동세력은 동질적 또는 균질적인 근대 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문화를 하나의 국가 안에 병행시켜 단지 정체성의 존중차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소수자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고 있다. 탈발전의 정치생태학이 개입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자연과 생태에 대한 존중의 가치관을 가진 원주민 운동의 저항을 기초로 하여 무한한 발전의 근대성에 대하여 생태적 대안과 협력과 연대의 ‘사회적 해방’ (Santos and Rodriguez-Garavito 2007, xix)을 재구성하려는 것이다. 그 방식은 공리주의적 경쟁에 기초한 개인적 소유권이 아닌 원주민의 오랜 문화 속에 녹아있는 집단적 소유권의 조합운동과 ‘장소’를 지키려는 운동을 통해서이다. 이 같은 사회운동을 연구하는 아르투로 에스코바르는 콜롬비아 출신 미국의 인류학자이다. 그는 근대성/식민성을 비판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여 대안적 세계화를 꿈꾼다. 근대적 발전주의가 아닌 다른 궤도의 사회관계와 사회와 자연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자본주의와 발전주의에 대한 대안적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과 실천의 새로운 사회적 행위자로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을 주목하고 있다. 2001년부터 포르토 알레그레 시에서 시작된 [세계사회 포럼]의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꿈에 동의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자본주의 질서의 강제적 재구성(허쉬버그와 로젠 2008, 16)이며, 부수적으로 근대성의 문화적, 정치 지리적 지도의 폭력적 재구성이다. 이런 폭력성은 바로 근대성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비판의식을 에스코바르는 가지고 있다. 근대성이 합리성의 의미 외에 다른 요소 즉, 폭력성, 차별성의 식민성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그는 인류학자답게 추상적 비판담론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연구를 중시하여 콜롬비아의 태평양 연안의 열대우림지역의 원주민, 흑인 공동체의 생태적, 대안적 사회운동을 연구하였다. 즉, 에스코바르는 탈발전의 정치생태학을 통해 세계화에 대

한 대안적 담론으로 ‘장소’의 방어를 주장하고 있다. 생태학은 “정치 행동이며 과학 원리이자 만물을 포괄하는 세계관”(작스 2010, 81)이다. 따라서, 친 근대성과 반 근대성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인식체계이다. 친 근대성과 반 근대성으로 서로 충돌하는 담론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헤게모니적이다. 서로 헤게모니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 이, 삼 십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가 단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유럽중심이라는 로칼의 세계화이고 이에 반대하는 대안적 세계화는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로칼의 세계화이다. 현재 국면에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리즘은 어떤 주어진 로칼리즘이 성공적으로 세계화한 것이고 로칼리즘은 패배한 자들의 세계화이다(Santos 2001, 4). 로칼리즘이 글로벌리즘에 종속되어있는 글로벌리즘이라는 상투적인식과는 매우 다른 날카로운 인식이다. 이 같은 인식에서 도출되는 의미는 선형적 보편성이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안적 세계화의 핵심적 가치는 형평성을 중시하는 재분배와 ‘차이’의 인정이다. 특히 위계 서열적 차별성을 거부하는 ‘문화적 차이’의 인정은 매우 중요하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전 지구적으로 금융자본의 우월한 지위의 확보뿐만 아니라 문화의 동질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화의 동질화에 의해 로칼의 고유한 ‘장소’의 사라짐은 단지 ‘토지’의 사라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로칼리티의 생태체계의 구성과 성격에 맞는 특정의 ‘용법’ 즉, 문화적 모델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Escobar 2000, 116).

근대성의 핵심적 가치가 무한한 발전과 진보에 있으므로 탈발전의 정치생태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대안적 세계화 담론의 기초가 됨은 당연하다. 에스꼬바르 외에 볼프강 작스등이 탈발전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탈발전의 ‘장소’¹⁾는 모든 교환을 자본주의 체제의 등가성의 원칙에 의해 정의되는 가치법칙(이진경 2010, 335)의 예외가 실천되는 곳이다. 그 예외적

1) 근대성은 곧 진보의 동의어이다. “근대성이 가지는 진보의 신앙은 자꾸자꾸 사실 그대로의 세계를 허물어뜨리고 장소를 느끼고 순환을 느끼고 지속을 느끼고 문화를 느끼는 생생한 감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추상의 세계, 동질적 공간, 직선적 시간, 과학, 돈으로 이루어지는 비-세계를 들이치는 초월의 필사적 모색이다.”(스베르트, 작스(편저) 2010, 416). 이 같은 지적은 관념적 서구 철학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사실의 의미를 조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라틴아메리카만이 예외적으로 대안적 세계화의 고유한 ‘장소’로 남을 수 있게 된 맥락은 라틴아메리카가 16세기부터 근대/식민적 자본주의체제의 형성이 시작된(Quijano 2000a, 201) 예민한 곳이기 때문이다.²⁾ 또한 근대적 자본주의 체제가 식민성을 그 핵심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유럽 중심적 근대성을 구성하는 식민성에 대한 비판이론-근대성/(탈)식민성 담론³⁾-이 라틴아메리카에서 90년대 이후 태동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식민성이란 위계 서열적 차별성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종주의⁴⁾에 다름 아니다. 라틴아메리카가 이처럼 위계 서열적 차별성에 민감한 것은 문화적 균질성이 아닌 문화적 ‘혼종성’을 가지고 있는 덕분이다. 이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근대성/식민성과 연관된 ‘타자’와 ‘자연’의 억압에 대해 살펴

-
- 2) 16세기의 라틴아메리카의 형성에서 중요한 점은 세계 시장체제와 자본-임금 관계를 축으로 하여 모든 착취와 통제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전에는 임금관계가 아니라 ‘노예’로서 착취를 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 사회학적으로 새로운 모델이었다(Quijano 2000a, 204). 1861-1865년의 미국의 남북전쟁도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 편입을 두고 일어난 전쟁이었다.
- 3) 근대성/(탈)식민성 담론은 90년대 이후 연구 논문을 활발하게 생산하고 있는 에과도르의 키토에 있는 안디나 시몬 볼리바르 대학교의 캐더린 월쉬교수를 비롯하여 아니발 끼하노, 아르푸로 에스꼬바르, 월터 미놀로, 엔리케 뒤셀, 페르난도 쾨로닐, 산티아고 카스트로 고메스, 하비에르 산히네스, 아리루마 꼬위등의 연구 그룹을 말한다. 주로 에과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미국의 학자들로 구성되어있다(Castro-Gómez and Grosfoguel, 2007). 이 담론은 세계체제론으로도 불려진다. 세계 체제론이 나오게 된 맥락이 무엇인가? 민족-국가주의, 제국주의의 패러다임이 가고 새로운 ‘제국’ 즉, 신자유주의 세계 체제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대안을 찾는 비판이론이 근대성/(탈) 식민성 담론이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가로지르고 우리의 일상적 삶을 통제하고 지식과 권력의 결합이 강화된다. 따라서, 범학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문화의 재의미화가 대두된다(Walsh 2003, 11-13). 즉, 비판적 문화연구 담론과 맥락이 상응한다.
- 4) 인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던 르네상스 시대인 16세기에 유럽세력은 라틴아메리카의 신대륙을 정복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작동시킨다. 그리고 유럽인들은 검붉은 피부를 가진 원주민은 인간이 아니라고 경멸했다(이진경 2010, 316 주1). 인종주의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시작된다.

보고 에스꼬바르의 비판적 담론이 주장하는 다양한 의미를 -‘장소’의 방어와 탈 발전, 탈 국민 국가적 흐름을 - 해석해보려 한다.

II. 근대성/식민성과 ‘타자’와 ‘자연’의 억압

근대성은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에 의해 유럽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이다. 미신적 주술과 비합리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제 1의 근대성(프랑스 혁명, 인민주권, 민주주의 등)의 단절이후 현대에 와서 근대성의 좌절에 대한 제 2의 근대성(사회의 전면적 성찰화)의 단절을 서구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주류 담론의 흐름이다.⁵⁾ 그러나 이들 유럽 학자들의 인식론적 단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라틴아메리카 학자들의 근대성/(탈)식민성 담론이 출현했다. 90년대 이후 근대성이 가지는 권력과 지식의 유럽중심성에서 오는 위계 서열적 차별성 즉 식민성과 무한한 진보라는 근대성의 속성에서 파생된 자본주의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인식론적 단절⁶⁾을 보여주는 것이

5) 제 1의 근대성의 단절(프랑스 혁명, 인민주권,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개념의 도입)과 백과 기든스를 비롯한 이들의 제 2의 근대성의 단절(사회의 전면적 성찰화)을 구별해야만 한다. 더욱이 ‘제 1의 근대성’은 이미 잠재적으로 전체주의적 결과를 낳을 ‘인민 민주주의’와 국가는 시민사회의 ‘야경꾼’에 불과하다는 개인적 자유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념간의 내재적 긴장을 그 특징으로 하는 게 아니냐(지책 2009, 137-138)는 지책의 사유도 역사의 진보를 믿고 있다는 점에서 라틴아메리카 학자들에 의한 근대성/(탈)식민성 담론의 근대성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6) 유럽 중심적 지식은 약 200년 동안, 두 가지 서로 다른 이론적 흐름이 대립되어왔다. 하나는 해계모니를 가진 자유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하위적이고 앞서의 흐름에 반발하는 역사 유물론이다. 홉스로부터 내려오는 자유주의의 흐름은 개인 생활을 신성시하는 것으로 신자유주의를 떠받치고 있다. 20세기 동안에는 구조 기능주의가 중심을 이루어왔다. 새로운 자유주의의 흐름은 포스트모더니즘(거대담론의 실종)에 연결된다. 역사 유물론은 노동과 생산관계를 모든 것의 우위에 놓는다. 이들 모두는 유럽중심적인 계보를 가진다. 시공간적으로 일직선적 진보의 권력 모델은 모든 역사에 비역사적, 선형적으로 결정되어있다(유럽적 근대성, 국민국가, 부르주아 가족, 근대적 합리성). 그러나 이런 인식에 대해 권력 모델의 이질적, 복합적, 비연속적인 요소들의 충돌과 모순에 대한 가장 좋은 사례가 라틴 아메리카의 정복(노예, 반노예, 임금 노동 등이 자본에 봉사하는)이다. 유럽적 근대성은 소수의

다. 이들은 근대성/식민성이 16세기부터 라틴 아메리카를 무대로 시작된 유럽 중심부에 의한 자본주의의 발진 동력으로 보는 것이다. 즉, 근대성/식민성은 16세기의 ‘아메리카’를 그리고 19세기의 ‘라틴’아메리카를 형성시키는데7) 작동되었다. 식민성은 구원, 진보, 근대화의 언어 속에 숨겨진 통제, 지배,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논리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조지 W. 부시정부에서처럼 근대성/식민성의 실체를 분명하게 인식시켰던 적이 없다(Mignolo 2005, 5). 현재 진행 중인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라틴 아메리카를 구성한 세계적 권력으로 유럽 중심적이고 근대적/식민적 자본주의 과정이 발전되어 보여 주는 절정(Quijano 2000a, 201)이라는 해석이다. 근대적 의미로서 인종의 생각은 아메리카 이전에는 알려진바 없고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사회적 정체성 즉 인종사이의 위계적 구분이 되는 원주민, 흑인, 메스티소 등의 용어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형성된 것이다(Quijano 2000a, 202). 식민성은 자본주의 권력의 글로벌 모델의 구성요소중의 하나이고 글로벌 주민의 인종적/종족적 분류의 적용을 의미한다(Quijano 2000b, 1).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현재의 세계를 10:90으로 분류하는 근거의 출발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근대성과 식민성이 서로 중첩되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담론이 서구의 존재를 은닉하고 서구가 계속해서 ‘타자’와 ‘자연’을 억압하는데 의존하는 방식을 숨기기 때문이다(Coronil 2000, 247). 서구의 지배를 합리적 보편성의 지배로 치환시키는 것이다. 근대성/식민성은 이성과 인본주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타자를 만들어 내는 기제로서 혼종성, 복합성, 애매성, 그리고 구체적 삶의 형식의 유연성을

사람들이 다른 다수의 사람들(타자)에게 지배 권력(강제력- 폭력)을 행사했다는 데 있다. 곧, 권력의 식민성이다(Quijano 2000b, 4-6).

- 7) 19세기 후반부에 떠오른 ‘라틴’아메리카의 구상은 프랑스에 의해 진전되고 있던 ‘라틴성’의 구상에 서로 다른 정도로 의존했다. 라틴성은 구 스페인, 포르투갈의 식민지 국가들이 새로운 글로벌한 근대적/식민적 세계질서에서의 편입을 위한 이데올로기였다. 이 시기는 ‘라틴성’이 유럽의 제국적 갈등의 맥락에서 제국적 차이를 재구성하려는 특별한 기능을 갖게 되는 시기였다. 19세기에 제국적 차이는 유럽 안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다. 라틴아메리카라는 이름은 제국적 국가들 사이의 갈등의 결과로 부상했다. 즉,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제압하고 남에서의 문명화의 사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프랑스가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Mignolo 2005, 58).

배제해왔다(Castro-Gómez 2000, 246). 그 대신 보편적 선형성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비-유럽지역에 대한 지식과 권력의 유럽중심성은 비-유럽지역에 대해 스스로의 인식론적,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끼쳐왔다. 즉,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일직선적 진보, 인종의 코드화를 통한 인종사이의 ‘문화적 차이’의 당연시, 그리고 이 문화적 차이들을 시간적으로 왜곡된 재배치를 통해 모든 비-유럽적인 것을 과거로 인식되게 만든다 (Quijano 2000a, 222). 세계체제에 편입된 주변부 국가들로 하여금 일직선적 진보의 유럽중심적 인식론에서 출발하여 근대화를 통해 전통문화를 경시하고 국가발전, 자본주의 발전의 과정을 당연한 경로(선진화)로 생각하게 만든다.⁸⁾ 그러므로 라틴아메리카 학자들의 근대성/(탈)식민성 담론이 제기하는 주장-근대성은 식민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차별적, 폭력적 성격이 자본주의 체제 발전의 동력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힘들게 된다.

III. 에스꼬바르의 탈발전 담론

1. ‘장소’의 사라짐의 방어

근대라는 시대는 ‘인간의 시대’다. 고대에는 신분에 따른 계급적 구분이 확실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노예는 “말할 줄 아는 도구”(이진경 2010, 315)였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모두를 ‘인간’으로 인정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있도록 사회, 정치적으로 ‘등가화’되는 것을 전제했다. 이 같은 ‘등가화’는 모든 것을 끊임없이 계산하게 하여 이익과 손해를 분별하게 하며 그 계산된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타산적인 활동으로 바꾸어버린다. 각자를 자기 손에 남은 이익만을 계산하는 흡수적인 개인으로 만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화폐화 되지 않는 모든 일을 무가치한

8) 민족주의는 중심지역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윌러스틴 2006, 107). 그러므로 민족주의는 근대성과 지배적 발전 담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것으로 만들었다(이진경 2010, 335). ‘장소’와 대비되는 공간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주류 근대철학의 선형적 시각이다.

현상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공간의 의미 혹은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근원적 지향성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어떤 공간이나 공간적 요소의 의미나 지향성은 언제나 인간이라는 존재를 선형적인 주체로 설정하여 그것과 관련된 어떤 주관적이고 인간적인 현상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면, 판테온 신전의 거대한 돔은 우주 내지 천구를 상징한다(이진경 2010, 130-131).

공간의 구체적인 용법보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인간의 시각을 보편적으로 단정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간을 관계론적 ‘기계’⁹⁾로 인식하여 공간의 의미를 공간의 용법¹⁰⁾으로 이해하는 시각이다. 공간-기계라는 의미는 선형적, 초월적 공간의 의미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밖의 다른 요소와의 관계방식의 변화가 공간의 의미를 변화시키게 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라틴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자본주의 체제의 근대성-기계에 의해 동질화되지 않는 비-자본주의적 공간을 침투하여 그 공간의 원래의 의미를 파괴하고 있다. 즉, ‘장소’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 열대우림지역이란 공간이 물리적으로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용법이 비자본주의적 연대경제의 공간의 용법에서 자본주의적 포섭의 ‘등가화’의 공간으로 용법이 바뀌게 됨을 의미한다. 즉, 공동체적 연대의 공간에서 개인적 사유의 공간으로 바뀜을 의미한다. 이는 단지 경제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고 원주민 사회의 특정한 문화적 모델이 사라짐

9) 들뢰즈와 가타리는 기계를 “다른 어떤 요소와 결합하여 어떤 질료적 흐름을 절단하고 채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모든 것”(이진경 2010, 116)이라고 정의한다. 기계라는 용어는 다른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을 상징화시킨 것이다.

10) 공간이 선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용법이 공간의 의미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모두 머리 숙이고 손들어!”라는 게릴라의 한마디로 대사관-기계는 감옥-기계가 된다. “어떤 공간의 의미는 그 용법이다.”(이진경 2010, 130).

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라지는 ‘장소’를 단지 ‘토지’의 사라짐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장소의 사라짐이 장소에서의 육체적 만남을 통한 사회의 특정한 삶의 체험에 기초한 고유한 지식의 전달까지 단절되게 한다. 그러나 주류적 관점에서 이 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한 장소의 파괴와 팽창은 보편적 역사의 ‘발전’의 과정이다. 그리고 유럽 중심적 시각에서 볼 때, 세계 체제를 다시 위계 서열화(식민화)시키며 재배치하는 과정일 뿐이다.

콜롬비아 태평양 연안의 열대우림 지역은 세계적으로 바이오다양성이 풍부한 곳으로 유명하다. 바이오다양성 문제는 담론투쟁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흑인과 원주민의 사회운동세력은 국가와 자본의 기득권층의 열대우림에 대한 경제적, 문화적 가치 부여와 전혀 다른 담론을 제시한다. 즉, 갈등을 형성하는 문화정치¹¹⁾를 통해, 바이오다양성의 보존과 활용에 대해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정치는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미/문화적 실천을 놓고 충돌과 모순이 전개되는 과정이다(Escobar and Pardo 2007, 290). 사회운동세력은 바이오다양성을 자신들 고유의 문화와 장소의 방어와 연결시키며 정치생태학의 대안적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다. 더 이상 지배계급의 테크노크라틱하고 경제적인 처방만으로 담론이 한정될 수 없게 하고 있다. ‘다른’ 의미의 담론 생산은 공동체와 사회운동 세력 등 소외된 로컬리티들이 새롭게 출현하는 대안적 세계화의 중심이 되게 하고 있다. 바이오다양성에 대한 네 가지 서로 다른 담론들을 본다면, 첫째 글로벌 중심적 다국적 기업의 시각으로 지적재산권을 통한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조한다. 둘째는 주권의 시각으로 제 3세계 국가들의 시각이다. 전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협상적 태도를 견지한다. 셋째는 환경보호의 원칙론

11) 심광현은 “문화정치라는 화두를 현존하는 문화(개념과 제도 및 관행)와 현존하는 정치(개념과 제도 및 관행)사이의 변증법적 긴장을 주목하고 그로부터 새롭게 실천적 공간을 개방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설정”(심광현 1998, 17)이라고 주장한다. 즉, 정치에 대한 비판을 제도적 또는 개념적 적실성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문화의 변혁을 통해 이루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문제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는 문화정치를 주체양식(문화)-지배양식(정치)-생산양식(경제) 간의 불일치와 괴리, 갈등과 모순의 복잡성을 분석함과 아울러 주체양식이 다른 두 양식에 개입하고 영향 받는 상호작용의 양태를 포착하게 해주는 ‘문제 틀 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심광현 2007, 45). 즉, 문화정치는 담론투쟁을 의미하게 된다.

을 주장하는 바이오민주주의의 시각으로 진보적 시민단체의 것이다. 넷째는 문화적 자율성을 주장하는 사회운동세력의 시각이다. 이들의 주장은 바이오 다양성을 자원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삶의 방식의 방어로 보는 것이다(Escobar and Pardo 2007, 293). 즉, 이들은 자연과 사회사이의 관계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상호성과 협력에 기초한 생산 체계를 요구한다(Escobar and Pardo 2007, 289).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본주의적 프레임을 넘어서는 비-자본주의적 시각을 보이는 것이다. 자연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타자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적 가치법칙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의 세계관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필요의 온전한 만족을 위한 자연의 창의적 이용을 중시한다. 산토스(2000)에 의하면, 생명의 파편적 비전(유전학)과 전통적 지식을 오직 잠재적 자본주의 가치로만 계산하려는 시도들이 국가입법과 국제적 협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곧 원주민이 주장하는 바이오 다양성에 대한 전통적 지식의 집단적 권리의 거부 를 의미한다. 원주민 사회는 비파편적 지식과 비 분리적 생물학적, 경제적, 사회적 실천의 행위자로서 자신을 총체적 사회로 인식한다(Escobar and Pardo 2007, 310). 콜롬비아의 열대우림 지역의 사회운동세력이 총체적 삶의 방식 즉, 바이오다양성에 대한 집단적 소유권의 방어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 보면,

70년대 초 부터 콜롬비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그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콜롬비아는 1991년에 원주민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 21호가 통과되었다. 그러나 아직 다국적 기업의 공세 앞에서 원주민의 집단적 소유권의 명시적 보호의 법률이 구비되어있지 못했다. Choco지역에서 흑인들은 카톨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1980년대부터 조직 운동-Embera Wounan Regional Organization, OREWA-을 시작했다. OREWA는 목재회사, 광산회사, 도로건설, 수력발전소 건설 등과 투쟁했다. 1991년 헌법 개정 의회에서 결국 1993년에 법률 70호로 흑인 공동체를 위한 문화적, 영토적 소유권이 인정된다. 1998년까지 140개 이상의 로칼 네트워크 연합 조직(Process of Black Communities)인 PCN이 결성된다. 흑인들은 각주에 조직(palenques)을 만들고 전국적으로는 PCN으로

연계된다. 이들은 급진적 정치조직으로 그들의 문화적 차이(유럽 중심적 개인주의에서 집단적 소유로)를 방어한다. 이 같은 사회운동은 배제, 지배와 착취의 다양한 형식에 대한 투쟁이었다. 기득권층과 대결하면서 창의적 결과와 해방적 관계를 발전시켰다. 이들은 국가, 자본, 과학, 바이오다양성 등 근대성과 만남을 통해 정치적 정체성의 형성을 이루었다. 국가는 이 지역에 새우양식장을 만들어 생태계를 교란시켰다. 1997년부터 처음으로 **집단적 소유권이 주어지기 시작했다**(Escobar and Pardo 2007, 298-302 강조는 필자).

결국 문제의 초점은 ‘근대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대적 주류 헤게모니 담론이 광대한 열대우림 지역을 인간이 살지 않는, 적대적이고 야만적인 곳으로 설정하고 그곳을 국민 경제와 국가의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종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땅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원주민들은 생태적 시스템에 해가 적은 아주 높은 지속가능한 생산방식을 개발하였다. 근대성이 자연과 사회의 관계에서 전자에 대한 후자의 착취와 억압을 의미하는 관계설정 방식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열대우림지역의 공간의 용법이 서로 다르고 따라서 공간의 의미가 다르게 된다. 그러므로 그곳을 자본주의 확장의 공간이 아니라 ‘장소’로 호명하게 된다. 이 ‘장소’의 재 긍정은 세계화 담론의 핵심인 공간, 자본, 근대성의 지배에 반대하는 비-자본주의와 로컬의 문화에 기초하여 세계를 재인식, 재구성하기 위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Escobar 2000, 115). 장소를 지키는 로컬의 문화가 세계를 재구성하는 힘은 비-자본주의에서 온다. 열대우림지역의 사회운동세력도 이 같은 실천을 통해 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유기적 자연’을 방어할 것이다. 유기적 자연이란 의미는 자연을 자본의 이용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이다. 이로써 근대성의 아주 전형적인 식민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적 문화정치를 건설할 지도 모른다(Escobar and Pardo 2007, 307). 문화정치는 끝없는 근대성과 자본주의의 자연의 정복에 대해 이와 다른 비-자본주의적 연대성의 로컬의 문화를 긍정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사회운동이 이렇게 변혁의 에너지를 크게 가지는 맥락은 바로 ‘문화적, 종족적 혼종성’(Escobar 2007, 9)덕분이

다.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혼종성은 유럽 중심적 개인주의적 글쓰기 문화와 원주민 문화에 뿌리를 둔 연대성이 강한 구어문화의 병존을 의미한다. 문화적 혼종성은 그 자체 대단한 것은 아니다. 주류 헤게모니적 영토 안에 편입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지속적인 문화적 재구성 또는 재창조를 의미할 뿐이다. 하지만, 문화적 혼종성이 강하면 어느 정치, 사회적 사건에 대해 ‘문화적 차이’를 유지하며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다시 말해 쉽게 지배담론의 영토화에 포섭되지 않게 된다. 근대성의 진전은 다른 말로 비 유럽적 이질적 고유문화의 파괴를 전제한다. 비-유럽지역의 고유한 사상과 가치판단에 대해 유럽 중심적 공리주의에 기초하여 문화적 균질성을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근대성의 기본적 경로이기 때문이다(러미스, 작스 편저, 2010, 113-114). 균질성의 강요에 대한 실천적 저항은 근대성과 자본주의의 정상적 전략에 변혁을 가져옴으로써 ‘다른 주체’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Escobar 2007, 367). ‘다른 주체’라는 의미는 근대성과 자본주의의 주류적 흐름에 포섭되면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넘어선다. 다시 말해, 지배적인 신자유주의 체제에 포섭되면서도 타자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한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다문화주의’¹²⁾의 틀을 넘어야 한다. 바로 콜롬비아 태평양연안의 흑인, 원주민 운동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들은 단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바이오다양성에 대한 전통적 지식의 집단적 소유권을 인정받음으로써 새롭게 ‘다른 주체’로 출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비-유럽권 지역의 문화적 동질성이 강한 지역보다 라틴아메리카는 문화적 혼종성으로 인해 근대성이 강요하는 이분법적 ‘타자’ 배제의 시스템이 덜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라틴

12) 서구 맑스주의의 결론중 하나는 자본주의의 계급-상품 구조가 단순히 경제라는 특수한 ‘영역’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정치에서 예술, 종교에 이르는 사회적 총체를 중층 결정하는 구조화 원리라는 점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이 총체적 차원은 오늘날의 다문화주의적 진보 정치에서 중단되고 있다. 그것의 반자본주의는 오늘날 자본주의가 성적/인종적 억압 등을 산출하는 방식의 수준으로 축소된다. 오늘날의 비판적 담화에서 ‘노동자’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이민자/이민노동자들’에 의해 대체되거나 지워진다는 사실(지젝 2009, 141-143)이 이를 증명한다. 이런 의미에서 탈발전 담론은 오늘날의 새로운 좌파적 총체성 담론이라고 하겠다.

아메리카가 다른 제 3세계의 지역과 달리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포용하면서도 근대 자본주의적 성장을 자기 것으로 삼아온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원주민들이 정복자들이 가져온 양, 닭, 철을 받아들이다(13) 오늘날의 브라질 밀림지역의 카야쵸족도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밀림지대를 누비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Escobar 2007, 9). 다시 말해 원주민들과 사회운동 세력은 오래된 것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것’에 대해 비판적, 횡단적, 유머스런 태도를 가지며 호감을 보인다. 이분법이지 않은 라틴아메리카 대중의 일상적 실천은 국가와 근대과학의 통제적이고 도구화시키는 시도에 반대하는 반 헤게모니적 힘으로 작동한다. 이 실천은 근대성의 일직선적 서사적 배치에 저항하고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 또는 역사적인 것과 마술적인 것 사이를 오락가락한다(Escobar 2007, 366). 이를 통해 우리는 문화적 혼종성의 인식론적 태도가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체제 변혁에 도움을 주게 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세력의 다양한 대안적 세계화의 흐름은 완전히 자본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혼종적 태도 즉, 자본주의/비자본주의의 병행적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2. 탈발전의 정치생태학

우선 근대성과 발전은 담론과 권력으로 작동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론은 푸코에 의하면 복잡한 관계들을 모으고 일정하게 배치하는 방식이고 오직 일정한 것만이 말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Escobar 2007, 21). 에스코바르의 탈 발전 담론의 전략은 바로 푸코의 문제 의식을 이어받아 ‘발전’이 선형적, 보편적, 균질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화된’ 개념임을 드러내며 다른 방식으로 발전을 바라봄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40, 5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 걸쳐 오랫동안 발전이 근대 국민국가의 발전과 연계되어 전 세계적인 지배 담론으로 기능해왔다. 1949년에 미국 대통령 트루먼에 의해 발표된 취임연설이 대표적인

13)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대표적 소설 『백년의 고독』에서도 원주민들의 외래문화에 대한 유연하고 유머스런 수용의 태도를 인식할 수 있다.

발전담론이다.

세계인구의 절반이상이 극빈선 가까이에 살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는 이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시킬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거래의 개념에 기초한 발전계획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열쇠이다.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열쇠는 근대적 과학과 기술의 지식의 더 많은 적용이다(Truman 1964, Escobar 2007, 17 재인용).

유럽 중심적 근대성의 발전 담론은 2차 대전 후 50-60년대에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도 선진국 모델인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한 인프라 투자로 자동으로 정치, 사회, 문화적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트리클 다운’ 이론으로 선진국의 부와 풍요가 많은 나라들에 확산될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근대화 담론이 정치, 사회, 문화적 비용에 상관없이 유일하게 미신과 낡은 사회적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작동하면서 조상대대로의 전통적인 철학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Escobar 2007, 18). 그러나 그 실제결과는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80년대 이후 추진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양면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한편으로는 “많은 남반구 국가들이 돈이 없어 쪼들때던 처지에서 차세대 공업국으로 변신하여 경제부국과의 거리를 좁혔다. 1949년에 빈국이 부국을 언젠가 따라 잡을 것이라던 트루먼 대통령의 장담이 이런 나라들에서 정말로 실현된 셈이었다.”(작스 2010, 9).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발전이 일국 국민경제의 통합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국 중산층의 형성보다는 초국가 경제 복합체의 확산과 함께 이루어지는 만국 중산층의 형성을 뜻하게 되었다.”(작스 2010, 10). 일국의 국민경제 발전과 대중의 삶의 질의 통합적 발전은 환상이었고 사회적 양극화가 전 세계에 걸쳐 확산되었다. 오히려 대부분의 주변부 국가들의 일반 대중에게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약속된 유토피아와 달리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다수 대중의 빈곤의 급증과 생태적 사막만이 남게 되었다(Escobar 2007, 8). 이런 의미에서 세계화가 초국적 흐름인 것은 분명하다. 발전 담론을 받아들이는 한, 중심부 국가들과 주변부 국가들은 같이 이

데올로기적으로 발명된 발전의 궤도에 놓이게 되고 주변부 국가들은 늘 주변부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미 현실적 맥락을 잃은 신기루의 궤도인 것이다. 경제적 근대화와 투자를 통해 자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계적 환상을 주변부 국가들이 아직도 가지게 되면서 왜 발전하여야 하고 왜 발전 모델이 유럽 중심적 모델을 따라야만 하는 지에 대한 인식론적 성찰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¹⁴⁾ 이것이 곧 “발전 담론에 의한 현실의 식민화”(Escobar 2007, 20)이고 “제 3세계의 발명”(Escobar 2007,19)이다. 예를 들어, 발전 담론의 대표적인 에이젠트로 세계은행을 들 수 있다. 세계은행은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을 좋아하는 네팔에 대해 집중적으로 근대화와 발전의 이름으로 가족계획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네팔의 고유한 로칼의 시각에서는 너무나 낯선 것이었다(Escobar 2007, 276). 무엇을 위한 발전인지 회의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70년대까지 경제발전과 근대화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그러다가 생태위기를 맞으면서 성장의 제한이란 담론이 일시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담론은 “제한 있는 성장”(Sachs 1988, Escobar 2007, 328 재인용)으로 바뀌게 된다. 80년대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인식론과 맞물리는 담론이다. 그 상징적 담론은 1987년에 유엔에 의해 소집된 노르웨이 여 수상 브룬트랜드(Brundtland)가 주재한 위원회 보고서로 알려진 ‘우리의 공통된 미래’이다(작스 2010, 89). 이 담론으로부터 유럽 중심적 합리성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발전’(desarrollo sostenible)개념이 나오게 된다. 이 개념은 환경과 발전을 조화롭게 경영, 행정, 관리¹⁵⁾하여 발전을 지속시키는데 핵심적 가치가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자연’을 ‘환경’으로

-
- 14) 이 같은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더글라스 러미스는 흥미로운 언급을 한다. “문제의 해법은 빈곤의 문화를 발전으로 가는 길 위에 두어 빈곤의 문화를 크게 바꾸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과잉의 문화를 역 발전으로 가는 길 위에 두어 과잉의 문화를 크게 바꾸는데 있다”(러미스, in 작스 2010, 124)고 한다. 우리는 이런 담론을 대할 때 지나친 유토피아로 생각한다. 그러나 어느 지역의 고유의 삶의 방식 자체가 탈발전의 틀 안에 있을 경우 그 로칼 문화의 유지는 결코 유토피아가 아니다.
- 15) 브룬트랜드 보고서는 첫 문단을 이렇게 끝맺는다. “벗어날 길이 없는 이 새로운 현실은 인식되어야 하고 또 관리되어야 한다.”(작스 2010, 74). 생태적 문제에 대한 인식보다 관리가 더 중시되는 것이다.

치환시킨 것 이다. 자연이 정치와 기획의 대상이 되면서 어느새 ‘환경’으로 바뀐 것이다. 자연은 이미 생명과 담론의 원천인 자율적 단위가 아니다. 자연을 도시 공업 체계의 자원으로 파악하는 근대성의 고유한 ‘인본주의적’ 시각에 맞닿는다(Escobar 2007, 321-327). 이로써 바이오테크놀로지 관련 다국적 기업들은 열대 우림의 생물종들의 이용과 규제를 이윤을 낼 수 있는 자산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Escobar and Pardo 2007, 288). 특히 콜롬비아의 태평양 연안 열대우림에 대한 자본주의 기업들의 침투는 주로 바이오다양성에 대한 전통적 지식의 채취에 중점을 두어왔다. 원주민의 전통적 지식에 대한 집단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근대적 자본의 논리의 무기는 지적재산권과 특허제도에 있다. 인식론적 근거는 자연은 인간이 이용할 대상일 뿐이고 합리성에 기초한 근대성은 개인의 사적소유를 절대시한다. 근대적 시장사회 경제는 개인의 자기이익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폴라니(2010, 586-587)에 의하면 경제생활을 그런 식으로 조직하는 것은 전혀 자연적인 것이 아니며 엄격히 경험적 의미에서 예외적인 것이다. 이런 예를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흑인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대우림지역의 원주민, 흑인들은 개인의 자기이익을 절대시하지 않고 정치적 자율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소중히 한다. 기존의 국가, 자본의 논리와 커다란 ‘문화적 차이’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경제, 사회적 변혁의 실제 대안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태평양 연안 지역의 흑인운동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가 ‘문화적 차이’에 대해 정확하게 언제부터 말하기 시작했는지 모른다. 정부는 계속해서 민주주의와 발전을 말한다. 우리는 자율과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대답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정체성을 건설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제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현재 자본의 공격 앞에 우리가 취약하게 된 것이다. 현재, 대안적 사회, 경제적 제안들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임무다(Escobar 2007, 353 재인용).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흑인과 원주민 등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생산적, 사회적 정체성의 영토인 ‘장소’의 방어를 위해 벌목, 공장 건설,

도로 및 수력발전소 등의 건설을 반대하며 저항하기 시작한다(Escobar and Pardo 2007, 288). 여기서 흑인과 원주민 등에 의한 사회운동이 중요한 문화 정치의 행위자로 출현한 것이다.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자율적으로 지키기로 한 것이다.

OREWA, OIA 등의 원주민 운동단체는 전통적 지식은 원주민의 집단적 재산이라고 선언한다. 이들 종족의 집단적 소유권이 보장되기 전까지 바이오 다양성에 대한 연구프로젝트가 유예될 것을 제안한다. 바이오다양성을 포함한 생태적 중요성을 가지는 문화정치를 만들어 냈다. 바이오다양성에 대한 지배 담론과 사회운동의 정치생태학사이의 거리가 엄청난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일국 안에 그들 고유의 권위와 규범을 가지는 다른 사회가 존재할 권리를 얻기 위해 국민-국가에 도전하고 있다(Escobar and Pardo 2007, 311-312).

바이오다양성에 대한 전통적 지식의 집단적 소유권을 선언하는 단계는 바로 국민-국가 모델에 대한 도전과 회의로 나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근대의 단일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복수-국민국가’의 모델은 이미 에콰도르¹⁶⁾의 경우에 뚜렷이 드러난다. 콜롬비아의 태평양 연안의 원주민과 흑인의 사회운동의 경우에도 근대적 국민-국가의 균질적인 틀에 도전하고 있다. 열대 우림 지역의 바이오다양성에 대한 자본주의적 공격을 방어하고 그들 고유의 전통적 지식에 대한 집단적 소유권을 보장받기 위해. “그들 사회운동세력은 일국 안에 그들 고유의 권위와 규범을 가지는 다른 사회가 존재할 권리를 얻기 위해 국민-국가에 도전한다. 이 같은 해방적 담론은 국가의 권력을 ‘나누는 권위’로 변혁할 것을 추구한다.”(Escobar and Pardo 2007, 312). 국가의 주권

16) 에콰도르의 원주민들은 1972년부터 토지문제를 둘러싸고 본격적 투쟁에 나섰으며 1986년 ‘원주민 종족 연맹’(CONAIE-Confederación de Nacionalidades Indígenas)을 결성한다. 이들은 2008년 에콰도르가 ‘복수 국민-국가-Estado Plurinacional-의 조항을 헌법에 삽입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에콰도르의 원주민운동이 가지는 ‘복수 국민-국가’운동이 고유한 자신들 문화의 정체성 유지의 차원을 넘어서 서로 다른 문화와 인식론체계 사이의 병행적 대화를 중시하는 상호문화성의 가치를 가지는데 대한 연구 논문으로 김윤경(2010)의 “1980-1990년대 에콰도르의 원주민 운동-CONAIE의 ”상호문화성“과 ”복수국민“-”이 있다.

을 나눌 수 없는 신성한 것으로 인식하는 근대성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 원주민과 흑인들은 그들의 ‘장소’를 지킴으로써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의 확보를 요구하는 수준도 넘어 그들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의 독점성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배세력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 부정의 역사는 사실 오래고 길다. “16세기에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의 ‘영혼’과 ‘문명’을 부정하고 원주민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부정한 것이 오늘날에도 원주민들의 경제적 문화적 자기-결정권의 부정으로 변모되고 있다.”(Estermann 1998, 8).

콜롬비아 태평양연안에서의 흑인과 원주민 사회운동세력이 획득한 ‘집단적 소유권’은 근대적 국가권력 안에 다른 정체성과 다른 생태적 가치를 가진 권위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두 가지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발전에 대한 저항과 함께 근대국가의 대의정치 형식에 대한 문화적으로 새로운 ‘복수의 상상력’ 또는 ‘복수 지식의 정치생태학’을 의미한다(Escobar 2007, 358). 흑자는 이 같은 복수의 상상력이 가뜩이나 신자유주의 체제에 의해 약화된 국가를 더 약화시킬지도 모른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는 자본축적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오히려 강화시켜왔다. 그러나 대중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신뢰와 헤게모니 기능은 약화되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복수의 상상력의 실천은 국가에 대해 대중이 잃어버린 ‘신뢰와 헤게모니’(Santos 2005)를 복귀시킬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의 무한발전이 가져오는 생태 파괴적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근대성이 근거하는 근대 국민-국가의 신화를 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주민, 흑인 사회운동의 복수의 상상력은 근대성이 함축하는 폭력성대신에 ‘돌봄’의 가치에 의존하므로 자본주의 체제의 ‘가치법칙’을 넘어서는 비전을 구체화한다. 또한, 대중이 사회적 주체로 출현한 제 3세계의 사회운동의 체험에서 볼 때 단순히 제 3세계의 범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글로벌 자본주의 문명의 바깥에서 제 1세계에 대한 대안적 실험도 구체적 가능성으로 보이고 있다. 구체적 가능성은 제 1세계인 유럽에서도 생태적 파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탈발전의 철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철학을 16세기 이래 오래 지속된 단일하고 균질적인 근대-국가의 프레임을 넘어설 단초의 가능성을 라틴아메리카에서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라틴아메리카의 흑인, 원주민 등의 사회운동이 지향하는 가치가 비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다. 전혀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다. 결국 근대성에 대한 인식의 단절 또는 기본적 전제에 대한 인식론적 변혁이 필요하다. 카오스에서 질서로의 일직선적 진보를 근대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성을 버리고 개인주의 또는 인본주의로부터 사회적, 생태적 연대로 나아감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흑인, 농민들의 ‘장소’를 위한 투쟁은 교환가치보다는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는 투쟁이다. 예를 들어, 안데스 지역 농민들의 세계관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 구별이 없고 개인과 공동체, 사회와 신들 사이에도 구별이 없다. 원주민 철학의 실체는 본질이 아니라 바로 관계¹⁷⁾라고 할 수 있다. 살아있는 세계는 모든 생명체끼리의 상호적 ‘돌봄’¹⁸⁾의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창조되는 것이고 관계된 존재들의 본질과 의지를 긍정한다.¹⁹⁾ 그리고 그 ‘돌봄’도 결코 동질적으로 모델화된 패키지가 아니다. 동질적으로 모델화되면 ‘돌봄’이 권력

-
- 17) 탈레스로부터 유럽철학은 존재하는 것의 아르케를 찾고 있다. 아르케는 현실의 환원 불가능한 원적인 근원적인 것을 말한다. 즉, 아르케는 ‘실재’(substancia)로서 인식된다. 여기에 대해 반대되는 짝이 되는 개념이 ‘우연성’(accidentalidad)이다. 아르케는 본질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고 후자는 ‘타자 속에 있다.’ 안데스 지역의 철학에서는, 아르케는 실재적 존재(ente)가 아니라 관계(relacion)이다. 라틴아메리카 철학의 ‘시작’(아르케)에는 관계가 있었다(Estermann 1998, 95).
- 18) 유럽에서도 근대성과 자본주의가 막 시작된 16세기만 하더라도 “거지는 잘 챙기고 잘 먹여서 내보냈다. 17세기 초에는 거지의 머리를 박박 밀었다. 그 다음에는 체적으로 후려쳤다. 그리고 17세기가 끝날 무렵이면 억압은 극단적 수단으로 기울었고 거지를 죄수로 만들었다.”(브로델, 작스 2010, 133 재인용). 근대성이 ‘돌봄’ 대신에 폭력성을 함축함을 잘 알 수 있다.
- 19) 이 같은 상호존중과 ‘돌봄’의 가치관과 극단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근대성과 시장 근본주의의 식민성이다. “타운센드가 말하길 굶주림은 제어무리 흥명한 동물이라도 순하게 길들이는 법이며 또 제 아무리 비비 꼬인 꿀통들이라도 그들에게 예의, 공손함, 순종과 복종 등을 가르치는 법이다. 무릇 그들(빈민들)에게 일하고 싶은 맘이 들도록 자극하고 부추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굶주림뿐이다. 타운센드는 인간이 실제로 짐승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부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자면 자유로운 사회란 두 가지 인종으로 구성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그 두 인종이란 재산 소유자들과 노동자들이다. 18세기 중반 이후 전국적 시장이 발전하고 있었다.”(플라니 2010, 341-344). 이 인용문이 플라니 사상의 핵심이다.

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재구성이 있을 뿐이다. 라틴아메리카 농민들은 근대성의 도구들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유한 세계관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들을 이용하는 것을 배운다(Escobar 2007, 283-285). 이 같은 상호적 돌봄의 가치관에서 출발하여 사회정의의 지키려는 사회운동이 현실 권력을 쟁취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미래의 씨앗이 라틴아메리카에 심어지고 있다(Santos and Rodriguez-Garavito 2007, xviii). 즉, 사회운동세력에 의해 견인되어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 좌파 정부들이 들어선 것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유럽권에서 50년대 이후 중심부 국가들에 의해 ‘발명된’ 발전의 경로대신 주변부 국가들의 주민들 스스로의 ‘장소’와 전통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사회적, 문화적 고유 모델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싹트고 있다. 더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적 실천이다(Escobar 2007, 23). 이 같은 싹이 현재 초국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식인들은 약 200년 이상 지속된 근대성에 기초한 사유재산권과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적 틀을 가진 자유주의 사회의 우월성이 끝나가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Escobar 2010, 2). 물론 이 같은 신자유주의 체제 몰락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기는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원주민과 흑인들의 고유한 집단적 소유권을 위한 투쟁은 ‘다른’ 세계관의 가능성을 가리킨다. 이런 새로운 흐름들은 선형적 보편성과 유럽 중심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아닌 중심부 국가들과 주변부 국가들이 서로 차이는 있지만 평등한 관계를 가지는 비판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지향한다. 이런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바로 탈발전의 정치생태학의 철학과 상응성을 가진다.

IV. 결론

탈발전 담론은 환경을 보호, 관리하면서 성장을 지속하자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비판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싸우는 라틴아메리카 및 비-유럽권의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사회

운동의 움직임을 주목한다. 이런 흐름의 대표적인 학자로 인류학자인 아르투로 에스코바르를 들 수 있다. 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인식론적 뿌리인 근대성/식민성을 자본주의 체제의 성격과 연결시켜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이런 흐름의 학자들을 근대성/(탈)식민성 담론 그룹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는 다른 학자들과 달리 추상적 수준에서 인식론적 단절의 담론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연구를 매우 중시한다. 주로 콜롬비아 태평양연안의 흑인, 원주민 등 사회운동세력이 이 지역의 바이오다양성의 집단적 지식의 방어를 위한 투쟁을 주목한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가 ‘자연’을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자연’을 ‘환경’으로 치환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이를 통해 ‘보편적’ 자본주의적 공간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비-자본주의적 고유의 ‘장소’가 사라짐을 지적하고 있다.

무한대의 자본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장소’의 방어이고 또 하나는 근대 국민-국가의 프레임을 넘어서는 탈발전의 패러다임 제시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은 근대성/식민성이 인본주의에 바탕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원주민과 흑인들은 열대우림지역의 바이오다양성을 자원의 문제, 경제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삶의 방식으로 인식한다. 이것이 바로 ‘장소’의 방어의 의미이다. 이들 원주민들은 사회관계와 함께 사회와 자연의 관계도 상호성과 협력, ‘타자에 대한 배려’ 또는 ‘돌봄’의 가치에 근거한다. 비자본주의적, 탈 식민성의 가치이다. 이들 원주민과 흑인들은 오랜 투쟁 끝에 열대우림지역의 바이오다양성에 대한 집단적 지식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힘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종족적 혼종성’에서 온 것이다. 혼종성으로 말미암아 지배담론과 이데올로기에 균일적으로 포섭되지 않고 자율성을 지킬 수 있었다. ‘문화적 차이’를 통해 근대의 ‘자아’ 또는 ‘주체’와 다른 ‘다른 주체’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본에 의한 근대 국민-국가의 영토화에 포섭되지 않는 복수 국민-국가의 비전 또는 복수 보편성의 비전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전형적인 예는 에콰도르의 경우이고 콜롬비아도 그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현재 전 세계에는 초국적 부르주아와 초국적 가난한 대중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탈발전의 전략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문화적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지켜낼 수 있는 초국적인 비판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 같은 근대국가의 대의정치형식에 대한 새로운 ‘복수의 상상력’이 있어야만 탈발전의 저항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탈발전의 정치 생태학의 문제의식이다. 결국 문제는 다시 근대성/식민성의 문제로 되돌아가게 된다. 근대성의 도구적 유용성을 배척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의 세계관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실천을 현재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세력이 보여주고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윤경, 「1980-1990년대 에콰도르의 원주민 운동-CONAIE의 “상호문화성”과 “복수 국민”-」, 『서양사론』 제107호, 2010.12, pp.201-234.
- 구스타보 에스테바, 「발전 두 개로 나뉜 세계」, 볼프강 작스 외, 『반자본 발전사전』, 이희재 역, 아카이브, 2010, pp. 33-70.
- 더글라스 러미스, 「평등 발전이 약속하는 먼 미래」, 볼프강 작스 외, 『반 자본 발전사전』, 이희재 역, 아카이브, 2010, pp. 95-124.
- 마리아네 그로네마이어, 「도움 세련된 간섭」, 볼프강 작스 외, 『반 자본 발전사전』, 이희재 역, 아카이브, 2010, pp. 125-158.
- 볼프강 작스 외, 『반 자본 발전사전』, 이희재 역, 아카이브, 2010.
- 슬라보예 지젝 외,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 박대진, 박미선 역, 2009b.
- 심광현, 『탈근대 문화정치와 문화연구』, 문화과학사, 1998.
- _____, 「맑스적 코뮌주의와 ‘문화사회적’ 성격과 이행의 쟁점」, 문화/과학 50호, 2007년 여름, 문화과학사, 2007.
- 에릭 허쉬버그, 프레드 로젠,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김종돈, 강혜정 역, 모티브북, 2008.
- 이매뉴얼 윌러스틴, 『유럽적 보편주의』, 김재오 역, 창비, 2006.

-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그린비, 2010.
-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홍기빈 역, 길, 2010.
- CASTRO-Gómez, Santiago, "Ciencias sociales, violencia epistémica y elproblema de la "Invencción del otro", *La colonialidad del saber: eurocentrismo y ciencias sociales. Perspectivas Latinoamericanas*. Edgardo Lander (ed.), Buenos Aires :CLACSO, pp. 246-256, 2000.
- CORONIL, Fernando, "Naturaleza del poscolonialismo: del eurocentrismo al globocentrismo", *La colonialidad del saber: eurocentrismo y ciencias sociales. Perspectivas Latinoamericanas*. Edgardo Lander(ed.), Buenos Aires :CLACSO, pp. 246-260, 2000.
- ESCOBAR, Arturo, "El lugar de la naturaleza y la naturaleza del lugar?: globalización o postdesarrollo?", in Edgardo Lander(ed.), *La colonialidad del saber: eurocentrismo y ciencias sociales. Perspectivas latinoamericanas*, Buenos Aires: CLACSO, 2000.
- <http://sala.clacso.edu.ar/gsd1252/cgi-bin/library?e=q-000-00---0busca-busca%2csecre...>, pp. 1-21.
- _____, *La invención del Tercer Mundo*, Caracas: el perro la rana, 2007.
- ESCOBAR, Arturo and PARDO, Mauricio, "Social Movements and Biodiversity on the Pacific Coast of Colombia", in *Another Knowledge is possible*, Boaventura De Sousa Santos(ed.), New York: Verso, 2007.
- ESCOBAR, Arturo, "Latin America at a CrossRoads", *Cultural Studies*, Vol. 24, No. 1, pp. 1-65, 2010.
- ESTERMANN, Josef, *Filosofía Andina*, Quito: Abya-Yala, 1998.
- MIGNOLO, Walter D, *The Idea of Latin America*, Oxford: Blackwell, 2005.
- QUIJANO, Anibal, " Colonialidad del poder, eurocentrismo y América Latina ", *La colonialidad del saber: eurocentrismo y ciencias sociales. Perspectivas Latinoamericanas*. Edgardo Lander (ed.), Buenos Aires: CLACSO, pp. 201-246, 2000a.
- _____, "The Coloniality of Power and Social Classification",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6, no. 2, pp. 1-29, 2000b.
- SANTOS, Boaventura de Sousa, "Nuestra América. Hegemonía y Contrahegemonía en el Siglo XXI", *Tareas*, no. 128, CELA, Panamá,

<http://bibliotecavirtual.clacso.org.ar/ar/libros/panama/cela/tareas128.pdf>
-39, 2008.

_____, and Rodriguez-Garavito, "Expanding the Economic Canon and Searching for Alternatives to Neoliberal Globalization". in *Another Production is possible*, New York: Verso, 2007.

_____, "La crisis del reconformismo", in *Reinventar la democracia. Reinventar el estado*, <http://sala.clacso.edu.ar/gsd1252/cgi-bin/library?e=q-000-00...0bu2005>.

_____, "Nuestra América. Reinventando un paradigma subalterno de reconocimiento y redistribución", <http://sala.clacso.edu.ar/gsd1252/cgi-bin/library?e=q-000-00...0busca%2csecre> pp. 1-27, 2001.

WALSH, Catherine, *Estudios culturales latinoamericanos*, Quito:Abya-Yala, 2003.

❖ ABSTRACT

A study of political ecology of Post-development
- on critical discourses of Arturo Escobar

Tae-Hwan Ahn

This study has as a object to investigate some various meanings of the discourses of postdevelopment of Arturo Escobar with the respect of the social movements of the indigenous and the afro-colombians in the area of the Pacific Coast of Colombia. The ideological lines of Escobar go around the group of critical discourse Modernity/(De)coloniality whose thesis lies on revealing the coloniality as principal elements of the modernity from the XVI century until now culminating in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In another words, they try to seek for the alternative globalization based on the autonomy of the people who has been alienated for long time as 'others' by the eurocentrism of the power and the knowledge and on the equality of the cultural differences o the cosmovisions in Latin America.

Escobar concentrates on the fact that the neoliberal regime would turn the nature into the environment considered as the resources for example the traditional knowledges of biodiversity of the indigenous as the capital of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through the patents. However, the indigenous and the afro-colombians have fought fiercely to have them be maintained as a colective right of the possession not only to guard the economic interests but also their proper cultural traditions and the way of life based on the social solidarity of reciprocal care instead of the occidental individualism. This corresponds not only to the social relations but between the nature and the human society. And so, Arturo Escobar interprets these movements not only to defend the places but to express the cosmovisions of Postdevelopment further more the modern paradigm of nation-state.

Key Words

바이오 다양성, 근대성/식민성, 장소의 방어, 탈발전, 국민-국가를 넘어

Biodiversity, Modernity/coloniality, defend the places, Postdevelopment, over the nation-state

논문접수일: 2011. 01. 20.

심사완료일: 2011. 02. 25.

게재확정일: 2011. 03. 10.